

빨라지는 비핵화시계... '개성공단 재개'로 첫단추 꿰나

文 DMZ서 트럼프에 개성공단 언급
김정은 만난 트럼프 "워싱턴 초청"
후속 회담으로 '백악관회담' 가능성
제재 해제 청신호...개성공단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오울렛 초소에서 북측을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지난 6월30일 성사된 남·북·미 정상
의 판문점 만남으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공단 재개 기대감이 더욱 무르
익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
한 자리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처음 언
급했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정상
의 추가 만남을 위한 양측간 실무협상이
이달 중순께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다시 가속도가 붙고 있는 핵담판 과
정에서 개성공단이 대북 제재 해제
의 첫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제
출한 방북 신청에 대해 지난 5월 승
인을 한 상태다. 이는 박근혜 정부
가 2016년 2월 당시 개성공단을 전
면 폐쇄한 이후 처음이다. 다만 남
측의 승인에 대해 북측의 답변이 아
직까지 없는 상태여서 기업인들의
실제 방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북측의 경우 자산점검을 위한 남
측 기업인들의 방북과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통한 공단 재개는 별개
로 판단하고 방북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가해도 공단 재개엔 큰 도
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판문점 등에서
보여준 남·북·미 정상역사적 발걸음
이 3년4개월 넘게 굳게 닫혔던 개
성공단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갖
게 하고 있다.

지난 30일 오후 2시55분께, 분단
이후 최초로 한·미 정상이 DMZ를
함께

찾은 가운데 오울렛(Ouellette) 초
소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에게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위해 전방
부대를 북쪽으로 이전하지 했다. 이
는 한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
통령에게 개성공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
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단 관련
즉답 대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됐다. 많은 변화를 이뤘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면서 "감사하다(땡큐)"
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
통령에게 전한 발언에 대해 청와
대는 이후 "개성공단 재개나 대북
제재 해제 등에 대해 그 자리에서
(추가로) 말씀하신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두 정기간 오고간 추가 대
화에 대해선 좀더 확인이 필요하
다고 전했다.

미국이 개성공단 제재를 풀지 않
고 있는 핵심은 남측의 개성공단 기
업들이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불한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자
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 때문
이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는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평화를
위한 다중목적 역할을 하면 했지
북한의 '달러박스' 역할을 했다
는 것은 완전한 오해"라고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 하
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
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공단 근로자들의 임
금 전용 우려에 대해 "우리 정부
가 조사해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근본적 문제가 해소되
지 못한 만큼 (향후 재개시에는)
'임금직불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
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시
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개성공단 재
개에도 청신호가 뚜렷해지고 있
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워싱턴으로 공식
초청했고, 비핵화 추가 진전을 위
한 북미간 실무자 협상이 이달 중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가
진 합동 인터뷰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 "제재 완화
초기국면에서 예외적인 조치로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아 있는 북미의 추가 담판이
비핵화를 향해 달려가겠지만 기
존에 있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재개가 시작 단계에서 우선
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
이 나온다.

지난달 개성공단기업협회 방
미단에 포함돼 미국 워싱턴과 로
스앤젤레스(LA)를 다녀온 김학
권 재영솔루션 회장은 "개성공
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은 공단
이 하루 빨리 재개돼서 정상적
인 경영활동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남측이 방북을 승
인해 준 만큼 북한도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투자기업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빨리 방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허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SK이노베이션 울산복합플렉스(CLX) 전경. /SK이노베이션

정유업계, '친환경'으로 하반기 반전 꾀해

초저유황 연료유 수요 급증 전망
탈황설비 투자 강화, 회복세 기대

IMO 2020 황산화물 배출규제 시
행에 따라 국내 정유업계의 하반기
수익 성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탈황설비 투
자로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등 정유
4사의 실적은 올해 하반기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MO 20
20 황산화물 배출규제 시행으로
저유황유의 높은 수요가 예측되
면서 정유사들의 수익 또한 향상
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다.

IMO 2020이란 오는 2020년부
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량을 현행
3.5%에서 0.5%로 제한하는 규
제다. 해운사들은 거액을 들여 기
존 선박에 배기가스 정화장치(스
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액화천
연가스(LNG) 연료선으로 변경
해야 한다. 선박유를 저유황유로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
다.

초저유황 연료유(VLSFO)의 수
요는 2020년 하루 평균 100만 배
럴을 기록하고 2024년에는 하루
평균 180만 배럴 수

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게 업
계 관측이다. 고유황 연료유(HSFO)
수요는 올해 하루 평균 350만 배
럴에서 2020년 하루 평균 140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된다. 저유황유의 수요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유사들
의 하반기 수익 또한 수천억원대
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은 수
조원을 들여 황 성분을 걸러내는
탈황설비에 투자하며 고도화율
을 높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20년 완
공을 목표로 울산공장에 탈황
설비(VRDS)를 짓고 있으며 완
공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에스오일은 찌꺼기 기름을
다시 정제해 저유황 경질유를
생산하는 잔사유 고도화설비(RUC)
, 현대오일뱅크는 고유황 중
질유에서 아스팔텐 성분을 제거
하는 공정(SDA)을 이미 갖
췌다.

GS칼텍스의 경우 27만4000
만 배럴 규모의 고도화 설비를
갖춰 고유황 중질유를 휘발유,
경유 등 경질유로 전환하고 있
다.

/정연우 기자 ywj964@

'수출 뒷걸음' 완성차, 먹구름 언제 걷히나

글로벌 자동차시장 침체 장기화
中·터키 등 신흥국서 판매 줄어
르노삼성, 전년비 수출 25% 뚫



국내 완성차 업체가 중국을 비롯
한 신흥 시장의 판매 위축으로 판
매량 반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침체
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의 보릿고개도 길어지고
있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
대차는 지난달 37만8714대(내수
6만9877대, 해외 31만7727대)
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내수는
2.5% 증가, 해외는 10.1% 감
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현대차의 내수 판매는 쏘나타가
9822대로 실적을 이끌었으며,
그랜저(하이브리드 모델 2700대
포함) 6652대, 아반떼 5654대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극의
친환경차로 평가받는 수소 전
기차 넥소는 전년 동월 대비 8
배 이상 성장한 478대가 팔리며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경신했
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가 1853대, G70가 1382대,
G90가 1166대 판매되는 등 총
4401대가 판매됐다.

해외시장 판매 감소의 경우 중
국 및 터키 등의 신흥 시장에서의
판매 위축 등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기아차는 지난달 23만6229대
(내수 4만2405대, 해외 19만
3824대)을 판매,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차종별 실적은 스포티

지가 3만 7280대로 글로벌 시장
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K3
(포르테)가 2만7612대, 리오
(프라이드)가 2만4529대로
뒤를 이었다.

내수 시장에서는 카니발이 5909
대 판매되며 지난 4월부터 15
개월 연속 월간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내수 판매를 이끌었다.

기아차는 올해 하반기 권역별
책임경영 체제 강화와 공격적
인 신차 출시, 신흥시장 본격 공
격, 친환경차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을 통해 판매량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내수와 수
출을 포함해 1만868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내수는 7564
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지만 수출은 1만
1122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했다. 내수와 수출 전체
판매는 14.8% 감소했다. 모
델별로는 대표모델 QM6가 전
년 동월 대비 67.8% 증가한 3784
대 판매되며 르노삼성 6월 판
매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6월 18일 출시한 부분변
경 모델 더뉴 QM6 LPe는 멀티
미디어 및

뒷좌석 리클라이닝 등 편의사
양 강화에 노년층을 장악한 '국
내 유일 LPG SUV'라는 최상의
경제성에 힘입어 출시 12일만
에 1408대가 판매됐다.

르노삼성 수출 실적은 닛산 로
그가 지난달 대비 108.6% 증
가한 1만186대 수출한 것을 비
롯해 6월 한 달간 총 1만1122
대를 선적했다. 닛산 로그 수
출 실적은 전년 동기과 비교하
면 22% 줄어든 수치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총 3만6451
대를 판매했다. 내수는 5788대,
수출은 3만663대를 기록했다.
내수 판매는 쉐보레 스파크가
총 2567대로 한국지엠의 내수
실적을 견인했으며 말리부는
1183대가 판매돼 전년 동월
대비 13.2% 증가하며 스파크의
뒤를 이었다.

쌍용차는 지난달 경기 부진과 소
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내수와 수
출을 포함해 1만375대의 차를
판매했는데 그쳤다. 내수는 8219
대 판매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
은 기간에 비해 15.1%, 수출은
2156대(CKD 포함)로 25.5%가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17.5%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쌍용차의 내수 판매를 이
끈 티볼리와 렉스턴 스포츠의
감소가 컸다. 티볼리는 신형 베
리 뉴 티볼리 출시 영향으로 2940
대 판매되며 전년 동월 대비 20.4%
감소, 렉스턴 스포츠는 3119대
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2.2%
감소했다.

/양성운 기자 ysw@